**<0908 이화동>**

**토론 참여자: 정병국 의원, 천해성 차관, 김승남 회장, 홍상영 사무총장, 이윤정 학생, 강수민 학생, 임주혜 조교**

정병국 의원 (00:00:08)-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 연구원의 정병국 연구원입니다. 오늘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남남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정철 교수님 주관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대간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지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홍상영,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서 강수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김승남, 조은 문화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80대 분입니다. 그 옆에 분은 이윤정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시는 30대 이시고, 그 옆에 분은 이정철 교수님의 조교이시고, 이 분야를 전공하는 20대 학생이십니다. 그리고 이 옆에 계신분은 천해성 전 차관님이시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책임 연구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2-30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2-30대의 대북 생각들을 2시간의 걸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소개시켜 드린대로 10대, 20대, 30대, 5.8.6세대, 전쟁 경험하신 분들을 고루 모시고 세대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적대적 대결의 대상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총장님부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홍상영 사무총장 (00:02:50)

네 안녕하십니까 홍상영입니다. 제가 50대를 대변해야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쪽에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7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고 80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사실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배웠고, 무찔러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20년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평양을 다니고 그런 과정을 겪어오며 제가 느낀 바는 북한을 현실적으로 적은 맞다. 근데 한편으로는 적과 협력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할 대상도 맞다. 그래서 현재는 적은 맞지만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병국 의원: 그럼 강수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민 (00:04:10): 네 저는 오늘 10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된 강수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10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 사람과 얘기해본 것을 토대로 제 입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다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는 북한과의 통일 인권문제를 초 중때 배워왔는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저희 세대가 많은 대통령분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결렬이 되고의 과정을 보면서 북한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 (00:05:43): 결국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교육은 그렇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승남 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 6.25 체험도 하셨고, 교육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직업군인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텐데, 북한 지원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김승남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회장 (00:00:20): 제가 참 옛날 얘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때 6.25가 났어요. 6.25나기전에 초등학교 2,3 학년때는 유승 반란사건이라고 친척들이 빨치산과 경찰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6.25전쟁을 겪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당시 인민 재판하는 것도 봤어요. 격동기에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군대생활 21년하면서는 계속 전방에서 근무를 했죠. 대대연대 사단 작전참모를 하면은 북한을 이기는 비법이 무엇이냐를 항상 구상했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40년이상 지내며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같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미 상당히 같은 나라라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른 나라다. 지금은 김정은 세습정권이 오랫동안, 70년동안 해 왔잖아요, 또 그쪽도 하나의 체제가 존재하고 통일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통일을 하기가 어려운 우리 민족이다, 다른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은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돕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키고,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지원해서 100년 200년후에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활기차게 행복하게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정병국 의원 (00:02:38~): 네, 고맙습니다, 김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회장님 세대의 어르신보다는 굉장히 깨어 있으신 것 같고, 개방적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윤정 학생이죠, 이윤정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정 00:03:00: 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30대 친구들 남녀 성비 비율을 맞춰서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대의 대상인가 대화 협력의 대상인가라는 yes or no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 같구요, 비율로 보자면 한 6:4로 느끼고 있는게 아닌가 대화에 협력대상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 이전에 앞선 적대와의 대결 대상으로 좀 더 느끼고 있는게 현실인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30대의 경우는 사실 뭐 전교조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한민족이라는 우리는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불렀었고 뭐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지만 어 군 생활을 하면서 저희 저의 남동생이나 저의 친구나 저희 동생 저의 지인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던지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직관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 30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북한이 위협이었던 어떤 직접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으로 좀 더 생각을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이랑 남성이란 또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 군생활에 유무에 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병국 의원 (00:04:49~)

: 네 그래요, 임주혜 조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공하는 입장에서...

임주혜 (00:04:54~)

: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 학부 논문으로 2,30대 통일의식조사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많은 대상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지인이나 뭐 지인의 지인 정도로 그치겠지만, 저는 20대를 대표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제 주변 20대들은 10대와 30대의 중간 정도인 거 같아요 이게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특정 부정적 의식이 막 강하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무관심에 가까운 형태인 거 같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약간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입장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군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군생활에서 특정한 그런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고, 그리고 이런 대상과 이런 적대적인 대상과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냐이 질문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북한 인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00:00:13)

네 그래요, 일반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지금 말씀을 들어 봐도 세대간의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또 그것을 또 가깝게 그 후에 어떤 직후에 반공교육 교육을 받으셨던 분,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10대까지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결국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또 어떤 것을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식을 결정하는데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6.25 한국전쟁 그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세대 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단순하게 그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날에 북한체제가 바뀌지 않았고 마찬가지 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임주혜 조교님부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임주혜 (00:01:34~)

저는 한국 전쟁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전쟁이 저희에게 정말 마음이 아픈, 많은 사상자들을 초래한 것을 맞지만, 이걸 토대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런 의견에는 다른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윤정 (00:02:09~): 네 저도 좀 이어서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한국전쟁이라는 굉장히 아픈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참고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을 좀 분리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회장 (00:02:36~)

한국전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남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20년이면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한국 전쟁 자체는 26만명 사상자 군인이 전사하고 한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었어요. 북한 빼고 우리나라만. 그리고 외국 군들이 와서 전쟁을 참여했고, 정말 아주 우리 민족의 아마 우리 민족사에 제일 큰 아주 아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점점 잊혀 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한국 전쟁 얘기도 잘 안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잊힌 전쟁이죠. 그러나 한국 6.25 전쟁이 우리를 이만큼 발전시킨 원동력도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된 거는 그 폐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집약시킨거죠. 정말 존경스러운 국민들이죠. 북한이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만의 그 한국전쟁으로 받아들이냐 앞으로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그 상처를 아물어 가면서 이산가족 또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서로 체제는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서로 그 우리 그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서로 같이 상의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관계 북한과 우리가 아주 적대관계에 있지만 적대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더 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안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그런 그 공동선 공동으로 같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미래 행복한 나라 이런 거를 서로 맞대고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어요.

 정병국의원 (00:05:12~): 그래요, 어때요 우리 강수민 학생은… 지난번 우리가 토론을 할때에 20대학생 학생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노래를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랬는데 우리 그 강수민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

 강수민 (00:05:40~): 저도 사실 20대 분과 같이 그 노래 통일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20대 30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조금 먼 역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일제 강점기나 그런 역사를 배울때처럼 대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저희가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할 때는 지금 국제관계가 어떤지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북한의 정권이 지금 저희 정부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보고 우리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더 실이 되고 저기 득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정병국의원: 그래요, 우리 홍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상영 총장 (00:0032~):

저는 사실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에 그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 있냐 하면, 제가 고향이 시골인데 그 고향이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곡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일전에 낙동강전선 최전선이었습니다. 거기가 뭐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래서 저희 시골집은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던 집은 6.25 전쟁 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 동네가 다 폐허가 되었고요.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은 뭐냐 하면 거기에 이렇게 산에 땅을 파면 총알이 나와요, 탄피가 나오고 그리고 저 삼촌 친구분이 수류탄을 잘못 만져서 폭발해서 뭐 죽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삼촌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수시로 듣고 자란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참상이 뭔지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가끔씩 그 팔이 잘린 근데 다리가 한쪽이 없는 분들이 와서 저희 집 와서 그 보리쌀 같은 건 구하러 다녀요. 그분들이 손에 뭐 이렇게 갈고리처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면 한편으로 겁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쌀이라도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가서 이제 쌀을 주고. 그때는 그 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잘 몰랐죠 그냥. 근데 그 분들이 전쟁 때 다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수 없이 보게 되고 이런 과정을 어릴 때 겪어왔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수시로 간첩에 대한 이야기 북에 내려온 다는 이야기기 수시로 들리고 이게 그 주변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없어졌는데 이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한국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전쟁이란 경험을 받고 자랐고, 그러니까 대상도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김일성을 죽일 수 있으면 제 목숨을 주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라는 것은 저희 공동체를 누군가가 파괴하기 위해서 더 갖고 그걸 어쨌든 우리가 물리쳐야 했는데 거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이 제 기억이고, 크면서는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왜 일으켰지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한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한게 제가 20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고민들이 제 체험속에서 더 깊이 각인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인식들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런 북한이 지금 분단된 이래 두세대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문화적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냐, 그렇다고하면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상영 총장 (00:04:48):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남쪽 북쪽 분들하고 같이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백두산 같이 올라가서 그분들 북에서 오신 분들 남쪽에 오신 분들이 같이 모여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요.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남쪽에 가신 분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쪽에서 생각하시는 통일이 같을까요, 같지 않은 것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서로 다른 통일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일을 을싸하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방식을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통일은 사실은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을 주장하고 냉전을 주장하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말을 통일이라는 언어로 표현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통일은 좀 말이 안 맞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지금 통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자, 지향하면서 현재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그럼 우리 강수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민 (00:00:16~): 네, 일단저희 10대는 솔직히 통일에 대해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시키고 어떻게 북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통일을 보다는 비핵화 문제가 더 저희 세대에선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딱히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거 같아요.

정병국의원 (00:00:52~):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이 북한의 핵문제,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식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강수민 학생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10대에서는 통일보다는 위험한 이웃 국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2, 30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을 그냥 위험한 이웃국가, 불편한 이웃국가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같이 다루어 주어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과 핵문제를 김승남 회장님이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김승남 회장 (00:01:46~): 사실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을 사랑할 수 있다는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통일은 지금 시점에서는 딱 단념하고,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또 존재하고 있고 적과 통일 해선 안되잖아요. 또 우리가 자유통일 하자고 해도 되겠어요.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일단 꿈이었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있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이웃나라로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저쪽이 핵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핵 가지고 전쟁은 안 하도록 하면서 서로 그 발전해 나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라도 2 30대 젊은 친구들이 사회 리더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 합쳐서 나라의 에너지를 10배 20배로 만들자 이렇게 됐을 때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치게 통일을 집착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딱 내려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정병국 의원 (00:03:12~): 그렇다고 하면은 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론 적으로는 비용, 대가가 너무 크다, 그런 통일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도 해야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김승남 회장 (00:03:51~): 우리가 핵을 보유하던지, 미국과의 핵 전력을 우리에게도 이양 받든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젊은 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 놓고 우리는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라던지 일본과 다르게 한민족 두국가로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죠.

정병국의원: 이윤정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정 (00:04:37~): 저는 우선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라고 배웠지만 과연 대상인가라는 의문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30대들은 통일을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산 가족이나 이런 환경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베이비붐 세대신데, 저희 부모님도 전쟁에 대한 직접 경험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를2번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실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통일이 되면 어떤게 장점이고 어떤게 단점인가, 구체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거 같아요. 물론 그냥 먹고 사는게 굉장히 바쁘고 생존의 삶의 치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말인거죠. 이상적인 그 통일에 대한 큰 담론을 담론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도 적었던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좀 물어 봤을 때 소수였지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견을 또 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그럼 분단선언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영구분단 선언을 하고 독립된 국가로서 서로 그냥 이웃으로 지내는 거죠 이웃으로 지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만큼 젊은 세대들은 좀 실용을 중시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우리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데,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데라고 했을 때 그런 정책적 효용을 느껴본 사실 경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통일부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연락사무소 폭파하던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격되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세대에게 무슨 통일을 물어본다는 거 자체는 사실 어불성설인 거 같고 그리고 통일문제나 환경문제의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저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들 정책 결정권자들의 나이 때가 다 5 60대시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게 넌센스 거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나 환경 아젠다의 경우는 특히나 20대 30대 40대까지도 좀 고르게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는 과연 내려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보니 갖춰진 굉장히 북한의 생존과 그런 거 같은 그런 건데 비핵화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충격적인 요법, 아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까지? 라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파급 정책이 아닌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김승남 회장 (00:03:04~): 제가 한 말씀 더 해도 …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양쪽 다 평화체제로 구축하고 불가침조약을 맺고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이산가족 또 왔다 갔다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 번영하는 거 거기가 진정한 통일이 아닐까? 땅을 합친다 국가를 하나로 합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정병국의원: 임주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주혜 (00:03:44~): 저도 앞에 의견을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저는 이런 전공을 하고 있지만 통일을 같이 전공하시는 분들과 저희 스터디,

북한학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막 서로 막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북한이 우리에게 통일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서로 자주 하곤 하는데 이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통일만을 바라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연합이나 연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봉도 어느정도 서로 각국이 약간 서로를 해치지 않는 다 약간 이런 신뢰가 되었을 때 연방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평화로운 공존 자체를 통일로 지향을 하는 거 같아요. 어른들이 보는 통일은 합하고 왕래가 잦은 나라일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보는 통일은 그냥 각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도의 의미로 통일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우크라이나 다른 선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 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노력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뢰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은 대화 하나 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뭐 재생에너지 나 뭐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더 협력을 강화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국축하고 이게 곧 이어서 뭐 비핵화나 아니면 오후에 통일이나 이런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강수민 학생은 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강수민 (00:00:04~)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10대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았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셨듯이 북한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조금 극단적이거나 조금 급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몇 명있었고, 또 북한과의 교류, 북한의 에너지를 저희가 조금 발전된 기술로 개발을 해 주고 그런 교류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저희 북한과 한국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구축을 해서 조금 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럼 홍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상영 사무총장 (00:01:07~): 핵 문제를 해결할 수 방안이 있으면 제가 뭐 통일부 장관을 하든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니까 그만큼 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뭔가 결단을 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끌고 온게 우리의 잘못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20대 30대도 계시지만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왔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좀 자괴감도 들어가면은 미안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친 거 같아요. 북한이 핵을 만든다는게. 제가 북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이제 우리 한반도는 전쟁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면, 핵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서 전 세계 누구도 우리 한반도를 전쟁으로 처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 평화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누가 쳐들어온다는 것이냐, 너가 쳐들어 올까봐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쳐들어가냐,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특히 미국이 쳐들어올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있다. 그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이게 우리가 핵을 보는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한편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핵이라는게 큰 무기이지만 그걸 자기가 어디에 공격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공격하면 한반도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북이 평생토록 그러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발전이 안 되는데 그 인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자기들은 생존의 문제이니까 다른 거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또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답은 없는 거 같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저기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길 막막한데 핵을 들고 어쨌든 생존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책임감이 뭐냐면 그러면 저 방법, 저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게 우리의 숙제고 의무고 책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지금 10대부터 80대까지 말 들어보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를 해요. 통일의 대상인가 아닌가. 근데 또 통일부 차관을 직전에 위임한

정병국 의원: 이제 세대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또 통일에 대한 인식, 또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의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쯤에서 통일부에 그 직전 차관을 지내셨던 천해성 차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천해성 차관 (00:00:58~): 예 제가 그리고 저희가 해방되고 그리고 분단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민족으로서 당위적이고 좀 규범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남북간의 이질감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들, 위협이라던지, 또 핵 개발이라던지 이런게 있는 상황에서, 저도 앞서서 여러 세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진을 하지만 당장은 그것보다는 일단 좀 관계를 잘 유지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앞서 말씀 몇 분 하셨습니다만 그게 좀 더 실용적인 관점의 우리의 어떤 정책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통일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같은 그런 미래에 관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2030 물론 10대까지도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정책을 다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지불식간에 저희의 관점 또는 제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위의 선배들도 어른들의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변화된 생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고 파악을 하고 공감하고 그 눈높이를 맞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는 생각이 더 오늘 말씀드리면서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양한 세대를 물론 다 아울러야 되지만 특히 젊은 세대의 그런 입장, 변화된 시각, 실용적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00:03:34~): 예,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다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통일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시고 지금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다른 문제들은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아니 변화가 불가피한데 인도적 지원은 그래도 지속 가능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계신지 또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분들은 그냥 북한을 외딴 섬 같이 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총장님…

홍상영총장(00:04:52~):

우선 제가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단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총 책임자입니다. 22년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인도적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해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23년전 이 단체의 참여하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그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그냥 동포가 어려우니까 같이 도와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만 저희 단체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 단체가 서로 돕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잖아요. 당시에 이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라 이름을 붙인걸로 서로 돕기 운동으로 바꾼거다. 결국 우리가 동포를 돕는 것이 일방이 일방으로 지원하고 돕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럼 도움받는 동포도 불안이 있다. 이 운동은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서로 간의 이익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결국 민주적 화해니까.. 그래서 서로 돕는거다, 그래서 이게 서로 돕기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서로 돕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인도적 지원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인권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인권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신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의 문제, 인도주의적 문제 모두가 결국 우리 남과 북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더 발전적인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부당한 노력 중에 하나다,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이제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수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민: 07:49~

저는 일단은 국가 차원으로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NGO나 시민단체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나 국가적인 지원으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도, 지금 북한은 변화가 없고 저희가 지원을 해준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동의도 부족한 것 같고 뜻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시민단체가 모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 (00:08:48~): 요즘에 우리 강수민 학생은 미얀마 민족운동 단체들을 돕는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를 돕는 마음하고 북한을 돕는 차이가 있나요?

강수민 (00:09:03): 사실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미얀마도 물론이고 북한에 있는 국민들도 똑같이 이유는 다르겠지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처해있는 것은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북한을 보는 입장이 미얀마를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서… 사실 조금 1년전에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원활동도 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얀마를 보는 입장과 북한을 보는 입장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 (00:09:51): 네, 우리 그 김승남 회장님은 어떠세요?

김승남 회장 (00:09:59~):

북한은 국가적으로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통일을 내려 놓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역량이 되는 데로, 생필품이라던지 농약이라던지 북한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은, 얼마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길거리에 총살하는 것을 보았는데, 잠이 안왔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총살시키는 나라가 있나 하는데, 북한에도 얼마전에 북한의 지도자들을 총살시켰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북한이 정말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야 한다,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체계가 유지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인권이 말살된 상태로 지내면 안 된다,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00:11:48~):

네, 결국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건 없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설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내일 개입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윤정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정 (00:12: 28~)

네, 저는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으로 가야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정권이 바뀌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되, 북한에 대한 인권은 강하게 요구를 해야되지않나, 너무 눈치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지적을 할 법할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모습이 사실 비겁해보이고, 그리고 2019년에 의원님 자료 받으셨던 것이 기사되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30억정도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용으로 받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차례도 진행되지않았던 것을 정병국 의원님께서 2019년도에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을 냉철하게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면 통일부나 책임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병국 의원 (00:14:05~):

네, 그러면 우리 임주혜 조교님 말씀하시죠.

임주혜 (00:14:15~)

: 저는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권은 모두가 옹호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준수하는 나라다 인식을 국제적으로도 주려면 이것을 지속하는게 맞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기대를 한다면 실망을 하고 더 바라게 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것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가치를 옹호한다는 믿음은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00:15:10~)

: 그래요,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ODA사업도 사업도 많이 해요 원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북한이라고 해서 인도적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대가던 간에 바라면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상응한 변화가 없으면 끊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가도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결국 남북 간의 문제 한번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본 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안보나, 경제적 차원에서 지금 미국에 못지않게 중국의 영향력이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중갈등이 심화될수록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강요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전략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본축 속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어떤 입장을 쳐야 되는지 한번 의견들을 그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임주혜 조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주혜 (00:17:36~)

: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더 이상 안미경중이라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핵 억지력의 수단으로서 지속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중국에 대외무역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부분에 관해서, 저는 중견국 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숙지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 관해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려우나,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IT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강한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키워서 다자외교를 할 때 우리가 규범적 틀을 이끄는 쪽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치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00:19:07~): 그래요, 이윤정씨는…

이윤정 (00:19:05~): 저는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화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가는 것이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상 외교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위치안에서 한쪽 편만 들기에는 저희가 사실 손해봐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외교를 해야한다, 그러려면 주변국가, 주요국가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신뢰를 좀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신뢰를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신뢰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관계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김승남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남 회장 (00:00:04~)

: 저도 공감하고요,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적이 되어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한미동맹이나 중국과의 관계,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이 우리에게 잘할겁니다. 지금 양면외교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위치가 자꾸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동등한 외교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더 무시당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확실히 구축을 해 놓으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국이 우리에게 잘할겁니다.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동등한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 위치를 양쪽에서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하도록 한미일체제를 확실하게 하고, 중국과도 적당한 선에서 가깝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70%가 중국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대통령도 무시하고... 중국 자체가 한국을 속국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자처할 필요가 없죠.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이 확실하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이 함부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00:02:27~): 예 고맙습니다. 강수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민 (00:02:30~)

: 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명확히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외교정책이 계속 달라지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외교부는 신뢰를 잃었고, 또 다른 국가들에게도 신뢰를 잃었고, 얻은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국의원: 홍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상영총장 (00:03:17~)

: 예 우리가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이 잘 살기위해서는 이웃과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맹은 필요하죠. 어쩌면 한국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동맹의 관계와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70,80위 할 때의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10위안에 드는 군사,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의 한미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동맹의 질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한국에게, 한국이 미국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내용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미동맹은 더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일본과 중국 다른 이웃국가와도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국력을 볼 때 충분히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승남 회장 (00:05:16~)

: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작권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전작권을 NATO군 사령부에 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국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게 더 국가이익이라 보아서 그런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와 평화체제 구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군사력을 위임해야지 전시대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전작권을 넘기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자주국가다하는 것보다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냐를 봐야합니다.

정병국 의원 (00:06:48~)

: 결국은 외교는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고 결국은 국익이 어디있는가에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 외교조차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세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외교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가야되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는 주권 자존심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념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와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성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특히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요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출산에 따르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보면 세대간의 엄청 인식차이가 있고 그게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 (00:09:05~)

: 이번에는 홍총장님 말씀하시고, 강수민 학생,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맨 나중에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상영 총장: 최근에 90년들이 온다라는 책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저희 세대 친구들이 모여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런거에요. 그런 세대적인 문제들… 특히 90년대생들의 생각의 차이가 뭔가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90년대생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르신도 저 60년대 70년대생 눈치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좀 특별하신 분 같구요. 제가 계속 느끼지만 저희가 많이 그런 걸 느끼고 또 세대 간의 말이 안 돼 안 통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저희 실무자 90년대생과 토론을 하는데, 제가 민족문제를 꺼내니까요 민족문제와 평화 인권문제가 있어요, 저는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그 민족문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개념은 그랬어요. 근데 90년대생 그 친구는 인권문제가 비 정치적이고 민족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잠깐 볼 일을 엄청 찾는다고 할까요, 실무자가 사무실에 있으면 저녁에 예컨데 5시에 6시 마쳐야 된다면 조금 늦게 가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에 일을 했다고 하면은 다음 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약간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권리에 대한 생각도 강한 거 같고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도 좀 다른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거를 부단히 저희가 90년대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대체로 저희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00:03:35~)

: 제가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39세 이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30대, 20대, 10대가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하다보면 30대는 20대가 이해안된다고 보고 20대는 10대와 대화가 안된다고 보고. 이게 그정도로 급격히 세대가… 과거에는 세대가 30년단위로 넘어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5년단위로 생각의 차이를 갖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 10대가 있고 80대가 있어요. 강수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민 (00:04:35~)

: 저는 초등학생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하고 얘기할 때도 세대차이를… 그만큼 저희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느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세대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부단히 여러 계통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세대를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상이 바빠서, 자기가 속해 있는 같은 또래의, 나이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대 안에서 공통된 의견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각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젠더갈등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동아리가 하나 있고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동아리가 존재하거든요. 이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적은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비판을 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이 대화의 방식과 태도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만나서 진지하고 배려 있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정병국의원 (00:06:26~)

: 그래요, 임주혜 조교님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임주혜 (00:06:29~)

: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대갈등이 소통의 부재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도 큰 것 같아요. 제 또래가 딱 취준을 막 시작을 하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지 모르겠다 그로 인해 애도 낳고 싶지 않고, 혼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유롭게 즐기다가. 이런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이유가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자기 권리를 조금 더 우선시하게 되는... 자기 여유가 있으면 남의 의견도 듣고, 걱정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여유가 사실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병국 의원: 그래요, 이윤정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정 (00:07:52~)

: 저는 세대 간의 요인은 당연히 복합적이겠지만 단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로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굉장히 강성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고, 연금을 세어봐도 부모님 세대보다 낮은, 들어가는 것보다 받는 돈이 그렇지 않은 것이 명료하고, 우리 윗 세대가 미래세대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는 권리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시간,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대 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MZ세대의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고스펙인 경우가 많아 상향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또 개인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러한 세대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때, 세대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얼마나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지도층, 사소하게 우리 집 안에서도 얼마나 개선의 노력을 했었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구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는 결혼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각이 안나오는거에요. 멋모르고 결혼해서 헤쳐 나가고 육아하고 하다 보면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30년 후에는 일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일부 보면서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 일시적 돈을 준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고, 결혼을 매력적으로 생각해볼 법한 입체적인 정책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조각 맞추듯이 되고, 총체적 계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 노력을 한다면 통합으로 해야지 그나마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하나 하나 봤을 때는, 유연하게 협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계승적인 조직의 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병국의원: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말씀하시는 각이 안 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들 일텐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 요인들이 있죠 주택 문제라던가 육아문제라던가, 교육 문제라던가 그 이후에 취업 문제라던가 까지도… 그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정 (00:12:43~)

: 되게 쉬운데요. 장소가 먼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주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아이가 하나인데, 둘도 고민하기 어려운게 현실인게,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밥 먹고 학교 끝나도 1시전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양부모 중 한 명이 케어를 해야 하는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졌죠. 그러면은 맞벌이가 외벌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계경제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교육을 줄일 수 없으니까 다른데에서 줄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내가 내 삶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 둘 셋은 욕심이구나하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드는 거죠.

정병국의원: 회장님, 지금 아들 같은, 손주 뻘 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아들 손주 분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나요?

김승남 회장님: 저는 대화를 많이하죠. 세대갈등은 가치관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죠. 옛날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참고 견딘다하면 그게 믿음인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꼰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하는데 우리 사회가 교육, 문화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게 5,60대가 주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어 있는거죠. 이제 1년에 25만명 이상 안 낳으니까, 군대 갈 사람도 없어요. 세대갈등은 너무 많지만, 우리가 노력을 안한거죠. 갈등이 있을 것이다하는 노력을 전혀 예상도 안하고 해소를 하기위한 노력도 안한거죠. 지금부터도 안 늦습니다. 교육, 사회, 공동체 시스템을 통해서 수정하면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도 제가 어제 결혼한 직원, 안한 직원들 6명 모아서 2시간동안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애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유치원, 대학교 보내주고 하면 몰라도 안 낳겠다.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집 없어도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다 해주겠다… 지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육아문제, 집 문제, 직장문제 사회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주는 대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나라 국민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일관성 있게 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병국의원 (00:00:30~)

: 예, 큰 숙제를 또 안고 있네요. 지금 세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치관의 근본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다라고 보시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보고 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하시더라고요.

가장 못사는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난 세대하고 선진 세대에서 태어난 세대하고 근본적인 가치관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엔 당연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달리 얘기를 한다면 전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한 세대에 모든 것을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죠. 같은 세대에 가장 못살던, 최빈국에서 태어난 세대하고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세대가 공존하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갈등요인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승남 회장님이 휴대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 분이 80대가 맞아? 그런데 이겁니다. 보면 세대 간의 소통, 특히 MZ세대는 소통의 수단이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익숙치못한 윗 세대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의 변화가 교육을 비롯하여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갭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통일정책이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을 이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실질적인 세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는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이미 김승남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권의 변화를 보면 정권이 반 모든 정책들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해도 정책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다른 분들이 정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하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은 3대째 세습제도를 하면서 일관된 정책으로 나오고, 과거에 김정일 체제에서 대남정책을 했던 사람이 김정은 체제까지도 연결이 되어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렇게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마다 그게 또 보수 진보로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바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승남 회장님께서 정권이 바뀌고, 진보던 보수던 대북정책에 있어서 좀 일관되게, 지속 가능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수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수민 2분 부터:

사실 저희 세대가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제도가 바뀌고, 심지어 정권 안에서도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도 원래는 수능만 봐 가지고 서울대 입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시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게 조금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저희로서도 1년마다 아니면 거의 한달마다 입시제도를 검토해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입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질지를 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저희 입장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정치인들은 조금 더 자기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지 표를 많이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조금 국민들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외교적인 정책들을 조금 더 정치권에서 배려를 해 줘서 지금 지속적인 방향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나아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윤정: 03:32~

저는 정책에 일관성이 신뢰라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정책에 일관성이 지금의 그런 우리 그 다음에 해 왔던 그 패턴 그대로의 반복되는 실수처럼 정책 일관성이 가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한 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북문제에 경우는 대북정책에 관련된 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의 관점과 가치관과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무담당자도 젊은 사람들로 좀 포진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좀 공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숨긴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신뢰하고 믿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직시를 좀 하고 우리가 뼈아픈 실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가 어쩌면 어쩌면 국민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태도를 좀 대봉 정책에서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의원: 예, 뼈 있는 말입니다. 임주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주혜 05:06~

일관된 정책 추진하는데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제가 알기로 통일국민협약 문재인 정권 하에 새롭게 도입이 됐다고 저는 책에서 봤는데요, 책에서 보기 전까지 저는 이게 존재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만약 이런게 있다면 좀 더 홍보를 청년세대들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 여기에서 소통을 하면 좋을 거 같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공간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소통의 공간이야 의미가 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관된 정책을 하고 그 일관된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려면 이런 소통의 공간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의원: 다음은 홍상영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상영 총장님 (06:06~)

: 저희가 지난 70년동안 조국통일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방식을 해왔습니다. 전쟁도하고 게릴라전도 해보았구요, 강한 군사력으로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봤고, 우리 안 해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서로 상대가 서울 상대를 먹겠다는 이런 거 안 되는 거 같다, 그리고 좀 정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1990년 12월인가, 남과 북이 만나서 남북한 기본협정을 체결합니다. 남과 북은 어떤 관계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갈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남과북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 남과 북을 설정합니다. 물론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로는 협력을 통해서 함께 평화로 가자 이게 기본적인 서로 간의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이게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남은 남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과의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그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김승남 회장님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승남 회장님 08:02~

: 저는 오늘 주제로 설정한 내용들이 아주 우리나라 현재 정말 난마처럼 얽힌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화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토론하면 그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 평화정책연구원 이런데 아주 우수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좀 틀을 서너 개만 저출산 청년들을 위한 파트 하나, 남북문제 남북문제를 우리나라 전체 컨센서스를 이루자 또 북한 문제나 또 한미동맹이나 우리나라 안보를 다루는 이런 문제, 또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정말 옛날 일제시대 교육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 네가지 주제로,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중요한 테마별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좀 모아 드릴테니까 왜냐면은 혁명이나 큰 변화는 몇 사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킹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 청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바꿔라 엎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제를 어제 딱 입고 이거 정말 너무 훌륭한 주제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정말 작은 불씨를 던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졍병국 의원 (00:10:26~):

회장님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천해성 차관님께서 지금까지 쭉 세대 간의 여러가지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서 국제정세까지,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까지,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까지 전반적으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만약 통일부 이제 만약에 통일부장관이 되신다 하시면 어떻게 반영을 하실건지, 가상에서라도 통일부 장관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세요.

천해성 차관 (00: 11: 11):

제가 우리 오늘 뭐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했습니다만 오늘 하면서도 회의 재미난 했습니다만 오늘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 방금 얘기했던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헌법 5년단임제 대통령제에서 7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대학교에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때 시대정신과 이런 걸 반영한 대북정책을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로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하듯이 상대방이 있는 외교라던지, 대북정책 같은 경우는 물론 변화를 해야 되고 정부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철학이나 같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게 맞지만 그 상대방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일관되고 지속되야, 일정부분은 변화하더라도, 정책 영역 중에 상당부분은 지속한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행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관료로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때 그때마다의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국민들 정치권 전문가 언론 이런 데서도 해서, 앞서 우리 임주혜 조교가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회적 대화라던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30년 전에도 제가 처음 공직에 있었을 때입니다만, 노태우 정부시절에 통일방안을 만들 때 국회에서도 1년넘게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 공청회, 국회 특의가 마련되고 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30년 넘게 일관된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아까 김승남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서울대학교 같은 또는 이런 연구기관들이 나서는 등 우리 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만, 사실 지금 뭐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미. 중 갈등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국제정세의 변화도 많이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뭐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도 하면서 또 우리의 독자적인 입장을 또 해야 되는 여러 균형이 저는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하되 그러나 유연성도 발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의원 (00:15: 01~):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결국 통일 문제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세대를 불문하고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변화하고 있구나 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해야 되는가, 정치권에 있었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미래학자, 이미 돌아가셨지만 앨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3개의 문명 기술 문명은 발달은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3마일로 가고 있고, 법제도는 1마일로 간다 이 말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87년도의 바뀐 6공화국 체제 속에서 멈춰 있는 거죠. 87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개헌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 되었습니다. 근데 34년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세계 10위권 때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시대 가 됐어요. 그만큼 사이즈도 커졌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 체제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 헌법이 안맞는거죠. 이제는 이 헌법체계까지도 근본을 바꿔야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그 우리 김승남 회장님 홍상영 사무총장님 이윤정 씨 임주혜 조교 그리고 강수민 학생 정말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셨고 아주 의미있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남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들을 향후 통일정책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데에도 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